

# 손흥민 짜릿한 챔스 데뷔골

### 코펜하겐과 PO 1차전 작년 아쉬움 달랜 결승골

### 레버쿠젠 2시즌 연속 본선행 기대... 28일 2차전

‘손세이셔널’ 손흥민(22·레버쿠젠)이 자신의 무대를 유럽 전역으로 넓히겠다고 선언했다.

손흥민은 20일(이하 한국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파르켄에서 열린 레버쿠젠(독일)과 코펜하겐(덴마크)의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원정 1차전에서 결승골이자 자신의 UEFA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넣었다.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워 레버쿠젠은 3-2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레버쿠젠은 2시즌 연속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에 한발 다가섰다.

손흥민은 이날 UEFA 챔피언스리그 데뷔골로, 그토록 꿈꿔온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남긴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다소 지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옮긴 손흥민은 아직 이유에 대해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고 싶어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UEFA 챔피언스리그가 손흥민에게 꿈의 무대였던 셈이다.

그러나 지난 시즌 처음으로 밟아본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손흥민은 아쉬움만 삼켰다.

8경기에 출전한 그는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2개 도움만 남겼다. 정규리그와 DFB 포칼 등 독일 무대에서 12골, 7도움을 기록한 데 비하면 턱없이 뒤떨어지는 성적이다.

레버쿠젠도 덩달아 힘을 쓰지 못했다. 레버쿠젠은 본선 조별리그를 통과했으나 16강에서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에게 1, 2차전 합계 1-6으로 무참히 깨졌다.

그러나 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첫 판에서부터 골 침묵을 깨뜨리며 지난 시즌 정규리그, DFB 포칼 등 독일 국내 무대에 한정된 활약을 올 시즌에는 유럽 무대로 넓힐 조짐을 보인 것이다.

UEFA 챔피언스리그를 이유로 손흥민의 아시안게임 차출을 거부한 레버쿠젠도 덩달아 미소 짓는 모양새다.

레버쿠젠은 손흥민이 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아시안게임에 내보낼 수 없다며 대한축구협회의 차출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이날 손흥민이 구단의 믿음에 뜨거운 득점포로 보답하면서 그가 레버쿠젠의 UEFA 챔피언스리그 순항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손흥민은 28일 홈에서 벌어지는 코펜하겐과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2호 골이자 팀의 본선행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20일 덴마크 코펜하겐의 파르켄 경기장에서 열린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레버쿠젠과 코펜하겐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손흥민이 전반 42분 결승골을 터트린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수 경도CC ‘한국 10대 골프코스’ 잇따라 선정

전남개발공사(사장 전승현)가 보유하고 있는 여수경도CC(사진)가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한국 10대 골프코스’에 잇따라 선정됐다.

20일 전남개발공사(사장 전승현)에 따르면 여수경도CC는 최근 ‘서울경제골프매거진’으로부터 ‘한국 10대 퍼블릭 코스’에, 골프전문지인 ‘골프다이제스트’로부터 ‘대한민국 10대 베스트 뉴 코스’에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에서는 여수경도CC가 유일하다.

골프전문 월간지인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에서 선정 발표한 ‘2014년 한국 10대 퍼블릭 코스’는 골프업체와 학계, 코스설계 등 전문가 49인이 패널로

참여했고, 온·오프라인 독자 투표와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들의 설문조사를 더해 순위를 매겼다.

또 여수경도 CC는 ‘골프다이제스트’에서 지난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신규 개장한 4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147명의 전문 패널이 평가하는 ‘2014년 대한민국 10대 베스트 뉴 코스’에도 뽑혔다.

여수경도CC를 운영하는 전남관광(주) 송영진 사장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여수경도CC가 국내 최상의 골프코스로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 세계적인 명품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코스관리 및 고객서비스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성기자 chadol@kwangju.co.kr

## 강진중 축구부 추계 중학축구 아쉬운 준우승

강진중학교(교장 김경중) 축구부가 추계 중등축구 연맹전에서 준우승했다.

강진중 축구부는 최근 충북 제천에서 막을 내린 ‘제50회 추계 한국중등(U-15)축구연맹전’에서 성남 공생중 등 2-4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했다.

준우승을 이끈 최희원이 우수선수상을, 강이성 감독은 우수 감독상을 받았다.

추계 연맹전은 전국에서 345개팀이 참가해 지난 3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14일간 열전을 펼쳤다. 전국의 중학교 축구팀과 축구클럽이 5개로 구분해 조를



편성, 리그전으로 예선전을 치른 뒤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사진 찍고 공 직접 던져보세요...기아 챔피언스필드 ‘팬 존’ 설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가 팬과 지역민들을 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최근 챔피언스필드 4층입구와 5층입구 사이에 트리아트 포토존과 피칭존 등 체험형 ‘팬 존(Fan zone)’을 설치했다.

트리아트 포토존은 챔피언스 필드 타석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조성해 놓은 것으로, 팬들은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피칭존에는 스피드건이 마련됐다. 팬들이 직접 투수가 돼서 공을 던지며 자신의 구축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층입구 계단 앞에는 지름 6m, 높이 2.5m 크기의 타이거즈 모자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다. 기념촬영용 물론 미끄럼틀이 설치돼 어린이들의 놀이 기구로도 사랑받고 있다. 모자 조형물 옆에는 선발출전 선수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오늘의 라인업’ 게시판이 설치돼 경기 정보를 전달한다.

또 경기장 3층 3루측 메인 콘코스에는 덕아웃을 그대로 본 만 포토존이 설치됐다. 경기장 곳곳에는 타이거즈 선수들의 대형사진과 구단과 챔피언스필드 엠블럼을 래핑해 경기장 정체성을 강화했다. 야구공 조형물과 놀이방 등도 눈길을 끈다.

챔피언스필드의 ‘고품질 Look & Feel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KIA는 시즌이 끝난 뒤에는 폐쇄형으로 휘어지게 지어진 불펜을 직선 구조로 개선하고, 4층 난간 교체, 챔피언스 의자 교체 등의 작업을 통해 관중과 선수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챔피언스필드 5층입구 계단 앞 어린이 놀이터.

## 팬은 뒷전... 뒤늦은 우천취소 ‘분통’

### 프로야구 KIA·삼성전 관중들 입장 후 결정 우왕좌왕

뒤편이 개운치 못한 우천취소였다.

2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KIA와 삼성과의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됐다. 4경기 연속 우천취소다.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기상 상황이 있었다지만 그 과정이 깔끔하지 못했다. 이날 우천취소는 경기 개시시간인 오후 6시30분을 훨씬 넘은 뒤에야 결정됐다.

이미 비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이 관중석에 자리를 잡았고, 양팀 선수들도 몸을 모두 풀 상태였다. 취소 당시 거의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라운드 사정이 문제가 됐다.

그라운드 상태를 살펴본 심판진과 서정환 감독관은 뒤늦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할 수 있었지만 늘어선 결정 과정에 선수단과 관계자, 팬들은 우왕좌왕했다.

일찍 우천취소가 예상됐던 분위기였다. 정삼

적인 훈련이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하루내 비가 오락가락했다. 여기에 비예보까지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결정이 늦어지면서 관중들의 입장이 허용됐고, 그라운드 정비 작업이 이뤄졌다.

19일 경기는 너무 빠른 취소가 문제였다. 우천취소가 결정된 뒤 오후부터 비가 개면서 양팀은 입장을 다녔다. 허무하게 돌아서야 했던 팬들을 더 힘빠지게 한 선수들의 팬서비스도 문제였다. 우천취소 발표가 나오자 선수들은 우비와 우산을 챙겨든 관중석의 팬들을 두고 순식간에 라커룸으로 사라졌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하기 위해 찾아온 팬들에게 최소한의 인사는 없었던 선수들. 팬서비스는 안중에도 없던 우천취소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부상 이후 첫 캐치볼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류현진이 부상 이후 처음으로 캐치볼을 하며 몸 상태를 확인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에서 30년째 다저스 소식을 담당하는 켄 거니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류현진이 캐치볼을 하며 영달이 부위 근육을 테스트했다”고 20일(한국시간) 썼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다저스 전담 기자인 딜런 에르난데스도 이날 트위터에 “류현진이 스탠 콘티 트레이너와 캐치볼을 한다”고 쓴 데 이어 “후안 우리베가 콘티 대신 캐치볼 파트너로 나섰다”고 남기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아직 정식 투구를 할 단계는 아니며 가볍게 몸을 풀면서 부상 부위의 통증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지난 14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외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6회초 B. J. 업튼을 상대로 1타를 호소하며 덕아웃에 신호를 보내자신 교체됐다.

/연합뉴스